

# 금연 이슈리포트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ISSN 2508-8742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금연구역,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우리나라 간접흡연 폐해  
예방 정책의 현주소



Measures to Protect  
from Exposure  
to Tobacco Smoke

# CONTENTS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b>INFOGRAPHIC</b> <b>02</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포그래픽 우리나라 금연구역 지정 현황</li></ul>	<b>02</b>
<b>MONTHLY UPDATES</b> <b>04</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달의 정책</li><li>• 이달의 연구</li></ul>	<b>04</b> <b>06</b>
<b>MONTHLY HIGHLIGHTS</b> <b>08</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달의 이슈 우리나라 간접흡연 폐해 예방 정책의 현주소</li></ul>	<b>08</b>
<b>MONTHLY INDEX</b> <b>14</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달의 지표 담뱃세</li></ul>	<b>14</b>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Vol.51., NOVEMBER 2017

발행인 정기혜 기획총괄 선필호 구성·집필 김지혜·이정은·조윤채

INFOGRAPHIC  
No. 51

# 우리나라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  
- 법제처. (2017).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7).

16인승 이상 유상 운송수단, 항공기, 기차, 버스 및 택시

의료기관 및 보건소

1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지정된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게임방, PC방, 만화방 등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실내체육시설

※ 2017년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 시행

[서울시 조례]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강남대로 등 일부 실외  
공공장소

국회 및 정부 청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된 구역

어린이 관련시설 및 교통, 청소년 이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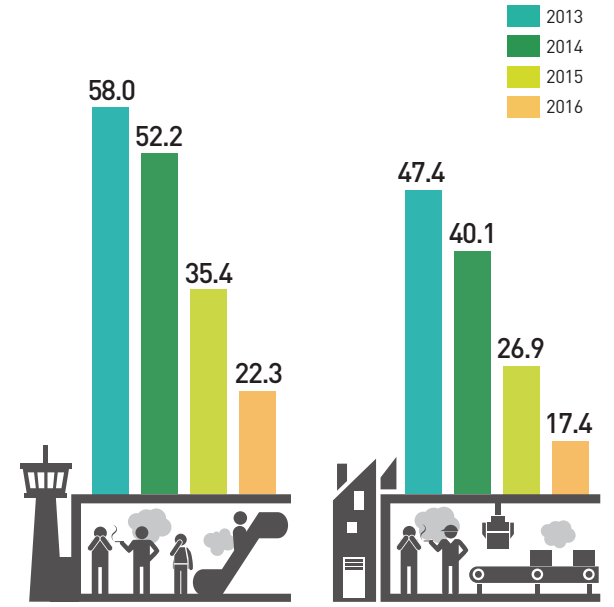
학교 및 학원, 도서관

음식점, 카페, 제과점, 고속도로 휴게시설



## 성인(만 19세 이상) 간접흡연노출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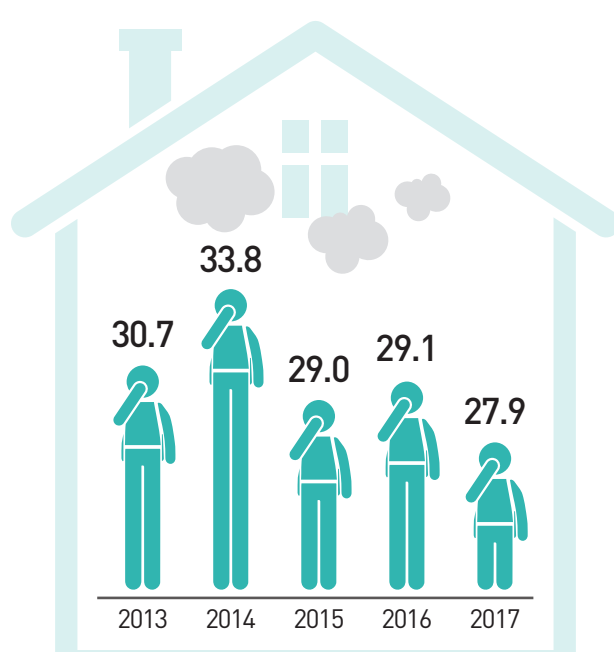
[단위: %]



※ 최근 7일 동안, 현재 비흡연자가 각각 공공장소의 실내, 직장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비율

## 청소년(중·고등학생) 간접흡연노출률 추이

[단위: %]



※ 최근 7일 동안 학생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가족이나 손님 등)이 담배를 피울 때 그 근처에 같이 있었던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 이달의 정책



### 미국, 담배 제조회사에 흡연 유해성 인정하는 광고 시행 의무 부과

담배 제조회사인 알트리아, RJ 레이놀즈, 로릴라드, 필립모리스 USA가 연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신들의 담배제품이 중독성이 강하며, 흡연은 살인, 자살, 약물 과다 복용 및 알코올 중독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내용의 광고 캠페인을 1년 동안 시행하게 되었다. 해당 소송은 빌 클린턴(Bill Clinton) 행정부 당시 법무부가 1999년에 제기한 소송으로 연방 정부가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데 드는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6년에는 담배 제조회사들이 수십 년 동안 미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의 유해성을 의도적으로 기만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교정 진술을 명령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고, 10년의 소송 끝에 지난 달 광고 문구의 정확한 표현, 글꼴, 형식 및 위치가 합의되었다. 연방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담배 제조회사들은 ABC와 CBS, NBC 등 주요 방송사의 프라임 타임에 흡연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TV광고를 송출하게 되며, 해당 광고는 일주일에 적어도 5회 이상, 1년 동안 송출해야 한다. 또한,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와 같은 주요 신문부터 라보드휴스턴(La Voz de Houston), 노던켄터키(Northern Kentucky) 등의 지역 신문을 포함한 50개 언론지의 일요일 신문에 동일한 내용의 전면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 따르면 2016년 미국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6만 4천 명인데 비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48만 명이며, 1,6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싱가포르, 담배 구매 연령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

싱가포르의 암린 아민(Amrin Amin) 보건부 장관은 지난 7일, 담배 제품의 구매, 사용, 소지, 판매 및 공급을 위한 최소 법적 연령(Minimum Legal Age)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암린 아민 장관에 따르면 매일 6명의 싱가포르인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조기에 사망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남성들 중 23%는 흡연을 지속하고 있고 이는 호주 14.5%, 미국 15.6%보다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린 아민 장관은 특히 청소년의 두뇌는 니코틴 중독에 취약한 점을 강조하며, 흡연자의 95% 이상이 21세 전에 첫 흡연을 시작한다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젊은이들의 흡연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또는 또래 집단의 압력이 청소년 흡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지적하며 담배 구매 연령의 상향 조정을 통해 청소년의 흡연 시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배 광고 및 판매 관리법(Tobacco Control of Advertisements and Sale) 개정안에 따라 담배 구매 연령은 18세에서 21세 사이의 흡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에 19세, 2020년에 20세, 2021년에 21세까지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암린 아민 장관은 “안정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조정 기간이 필요하며, 담배 구매 연령의 단계적 조정은 이를 충분히 고려한 실행법”이라고 말했다.



이달의 정책에서는 최근 한 달간 담배규제 정책의 도입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내·외 소식을 전합니다. 세계의 금연정책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모니터링하여 담배규제 분야의 최신 경향을 알아봅니다.



## 대한민국, 결련형 전자담배 규제, 금연구역 확대 포함 개정안 심의

지난 16일부터 결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된 데 이어 건강증진부담금을 일반담배의 89% 수준으로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결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은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결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폐암·후두암·심장질환 등 10종의 경고그림과 문구를 포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은 주사기 그림과 '중독 위험'이라는 문구만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음료를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고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실내 흡연을 허용하는 영업소인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일반적인 카페의 경우 음료를 제조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실내 흡연이 금지된다. 흡연카페는 음료를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함으로써 식품자동판매기 업소로 등록하여 법의 규제를 교묘하게 피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12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 조항별로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되거나 6개월 혹은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행정위원회도 결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탈리아, 교황청 내 면세담배 판매 금지

그렉 버크(Greg Burke) 교황청 대변인은 지난 9일 프란시스코 교황이 2018년부터 교황청 내 담배 판매를 금지하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렉 버크 대변인은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700만 명 이상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를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하며, 교황청은 더 이상 사람들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 관행에 협조할 수 없음을 밝혔다. 현재 은퇴자를 포함하여 교황청 직원들은 교황청 내 면세점에서 담배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1인당 한 달에 다섯 갑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의 경우 22%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교황청에서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면세담배의 구매 대행을 부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세담배 판매는 오래전부터 교황청의 주요 수익원이었으며, 연간 1천만 유로(약 13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렉 버크 대변인은 교황청 내 담배 판매가 교황청의 주요 수익원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어떤 이익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이달의 연구



### 담뱃세 인상이 단기적으로 노동연령인구의 건강상 이득, 건강 형평성 및 비용 절감에 미치는 영향

Cleghorn CL, Blakely T, Kvizhinadze G, et al. Impact of increasing tobacco taxes on working-age adults: short-term health gain, health equity and cost savings. *Tobacco Control*. doi: 10.1136/tobaccocontrol-2017-053914

담뱃세 인상으로 발생하는 건강상 이득과 비용 절감은 앞으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입안자들은 노동연령인구(20~65세)의 사회 내 경제적 생산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건강상 이득에 초점을 두고 단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0년이라는 단기간의 범위 내에서 담뱃세 인상이 노동연령인구에 미칠 영향을 측정하였다. 연구진은 성별, 나이, 인종에 따라 매개 변수화한 국가 데이터와 담배와 관련된 질병 16개의 다단계 생명표(Multistate Life Table)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조정변수인 담뱃세 인상률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0%로 조정하였으며, 2011년 뉴질랜드 인구 440만 명을 기준으로 할인율 3%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10년 동안 (1) 20~65세 연령대의 담뱃세 인상으로 얻는 비용 절감액은 1,060만 뉴질랜드달러(710만 달러 상당, 95% UI: 600만 뉴질랜드달러-1,770만 뉴질랜드달러)였다. (2) 20~65세 연령대의 담뱃세 인상으로 얻는 건강상 이득은 질보정 생존년수(Quality-adjusted Life Years) 발생액 기준으로 180 QALYs이며, 이는 전 연령대의 담뱃세 인상으로 얻는 건강상 이득인 268 QALYs의 2/3에 해당한다. 은퇴 연령대(60~64세)와 퇴직 연령대(65~69세)의 경우 담뱃세 인상으로 얻는 건강상 이득은 각각 전 연령대의 11.5%와 10.6%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조사기간 동안 노동연령인구가 담뱃세 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해당 연령대를 중심으로 둔 정책을 마련하여 담배규제를 위한 조세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달의 연구에서는 최근 한 달간 발간된 담배규제 분야 학술자료 및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근거 기반의 담배규제 추진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연구 내용과 주요 결과 분석을 통해 살펴봅니다.



## 사회 후생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본 금연과 관련된 '잃어버린 즐거움'의 중요성 재평가

Pechacek TF, Nayak P, Slovic P, et al. Reassessing the importance of 'lost pleasure' associated with smoking cessation: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and policy. *Tobacco Control*. doi: 10.1136/tobaccocontrol-2017-053734

본 연구는 흡연을 지속함으로써 흡연자가 갖는 불만족과 후회가 건강에 대한 염려와 위험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진은 미국 성인 흡연자 1,2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흡연으로 인한 후회, 금연 시도 여부, 중독에 대한 자가 판단, 건강 염려와 위험 인식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흡연자의 불만족과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회인구학 및 건강 지표에 맞게 조정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흡연자의 80% 이상이 금연 실패, 흡연을 시작한 것에 대한 후회, 중독 증상 등의 이유로 불만 수준을 매우 높음(59.8%)과 높음(22.5%)으로 응답하였다. 불만 수준을 높게 응답한 흡연자들은 성별이나 연령, 인종, 학력과 수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AORs(Adjusted odds ratios 0.5-1.2). 불만 수준을 매우 낮음(3.6%)과 낮음(5.9%)으로 응답한 흡연자들과 비교했을 때 불만 수준을 높게 응답한 흡연자들은 그들의 건강 상태를 중하위권으로 응답하였으며(AOR=2.3), 폐암 발병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가장 높았고(AOR=4.6), 미래에 자신이 폐암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OR=5.1). 응답자 중 극소수의 흡연자만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만족하며 질병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흡연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 흡연자의 비율보다 불만족하는 흡연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금연으로 얻을 수 있는 개별적인 후생에 초점을 둔 정책이 비용효과적 관점에서 더욱 적절한 것을 보여준다. 자신의 흡연 행위에 불만족하는 흡연자들이 성공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달의 이슈에서는 담배규제 분야 주요 이슈를 선정, 국내·외 동향과 정책 현안을 다룹니다. 담배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국외 사례와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국내 금연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 WHO FCTC 제8조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

흔히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법률의 목적을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담배규제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대중을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Protection from Exposure to Tobacco Smoke)하기 위한 조치로 기술하고 있다. 즉, 단순히 비흡연자가 같은 공간 내 가까운 거리에서 흡연자가 피우는 담배의 연기를 흡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자, 비흡연자의 구분 없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를 방지 및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FCTC 제3조에서 기술하고 있는 본 협약의 목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 WHO FCTC 제3조

#### 제3조 목표(Obje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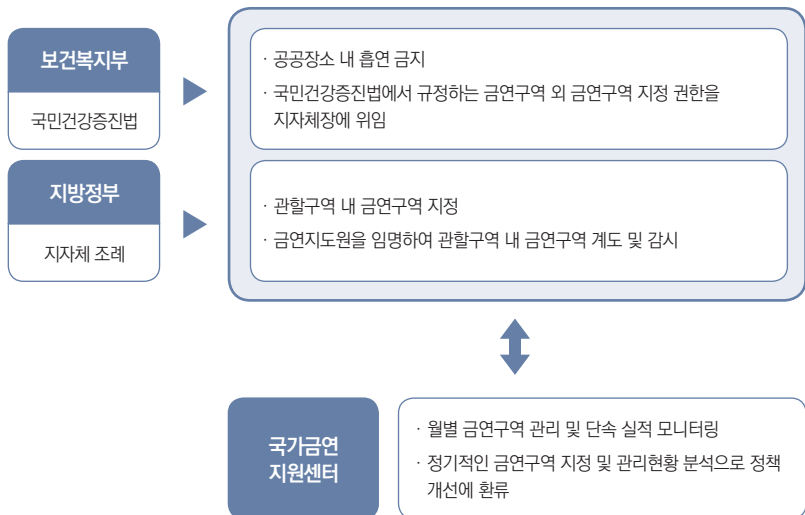
이 협약 및 의정서의 목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담배 사용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을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하여 당사국이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담배규제 조치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함으로써, 담배소비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로 인한 보건적·사회적·환경적·경제적 피해로부터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데 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담배연기에의 노출로 인한 보건적·사회적·환경적·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는 협약 '제8조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는 모든 실내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할 의무를 모든 협약 당사국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제8조의 이행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세부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2007년 제2차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협약 가이드라인 가운데 가장 먼저 채택된 것으로, 협약의 주요 조치들 가운데 담배연기로부터의 보호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 정책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협약 제8조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당사국은 협약 비준 5년 내에 협약과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포괄적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포괄적 조치란 담배연기가 100% 제거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거나 함께 사용하는 모든 장소나 환경에서 담배연기를 완전히 없애야 함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 금연구역 지정 현황 및 성과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을 시작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청사와 의료시설을 포함하는 총 10개의 공공장소 및 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었는데, 이때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물 또는 시설 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할 것을 명시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최대 30,000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끊임없는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의 결과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장소 및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환기시설이 있는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법을 강화하였다. 2012년이 되어서야 모든 공공장소 내 금연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2013년에는 일반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에서도 흡연이 금지되기 시작하였다. 점차 확대되는 금연구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에는 금연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조항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설되었으며(제9조의5),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금연구역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체계는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우리나라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체계



먼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공공장소 내 흡연을 금지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수립하여 전국에서 적용되는 금연구역을 지정한다. 그리고 지역별 금연구역 별도 지정의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여 지자체장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열된 금연구역 외 추가로 관할구역 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금연구역은 다시 지자체장이 임명한 금연구역 지정 관리위원회에 의해 관리가 되는데, 지자체별 금연구역 관리 및 단속 실적은 국가금연구역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통합시스템으로 모여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거치게 된다. 분석 결과는 현재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규제의 실효성 개선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강화의 근거로 활용된다.

2017년 11월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총 26개이며, 이 가운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올 12월 3일부터 이에 해당하는 스크린 골프장, 당구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 내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현황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敎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지속적인 금연구역 확대는 우리나라 국민이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위험이 감소되는 성과를 가져왔는데, 성인과 청소년 모두 실내에서의 간접흡연노출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러한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만 19세 이상) 간접흡연노출률 추이

구분	2013	2014	2015	2016
공공장소 실내	58.0%	52.2%	35.4%	22.3%
직장 실내	47.4%	40.1%	26.9%	17.4%
가정 실내	10.9%	10.7%	8.2%	6.4%

\*최근 7일 동안 현재 비흡연자가 각각 공공장소의 실내, 직장 실내, 가정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비율

청소년(중·고등학생) 간접흡연노출률 추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가정 실내	30.7%	33.8%	29.0%	29.1%	27.9%

\*최근 7일 동안 학생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가족이나 손님 등)이 담배를 피울 때 그 근처에 같이 있었던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7).

##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한 선결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간접흡연 폐해 예방에 있어서 개선될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먼저 흡연실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현재의 기술로 담배연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토네이도급 환기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즉, 그 정도의 강력한 공기흐름을 유도하지 않고서는 특정 공간에 배어든 담배연기와 그 배출물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업계에서는 끊임없이 ‘환기시설 설치’가 금연구역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금연구역 정책이 강화될 때마다 흡연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흡연실이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흡연실의 출입문을 여닫을 때마다 금연구역으로 흡연실 내 담배연기에 흘러들어오는 것 또한 흡연실 설치가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라는 금연구역 정책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100% 담배연기 없는 환경 이외에 환기시설, 공기여과장치, 흡연실 지정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담배연기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밝혀졌으며, 지금까지 어떠한 공학적 기술로도 담배연기를 100% 제거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WHO가 ‘포괄적(Comprehensive)’ 금연구역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이유이다.

흡연실 설치뿐 아니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사업장이나 공연장 등 일부 공공장소는 규모나 수용인원 등을 기준으로 흡연을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협약에서 금연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장소 중 조치가 전무한 곳도 아직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유흥음식점에 해당하는 술집, 나이트클럽이나 개인용 차량은 아직까지 금연구역이 아니다.

### FCTC 제8조 국내 이행 현황

핵심 지표	국내 이행여부	세계이행국가비율(%)
실내 작업장, 대중교통, 실내 공공장소 등에서의 흡연금지	O	92
정부청사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O	75
보건의료시설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O	84
교육시설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O	88
대학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O	71
사유작업장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	52
항공기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O	92
기차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O	65
지상대중교통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O	87
선박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O	61
영업용 차량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	82
개인용 차량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X	13
문화시설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	75
쇼핑몰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O	67
술집·바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	47
나이트클럽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X	44
식당에서의 포괄적 보호시행	O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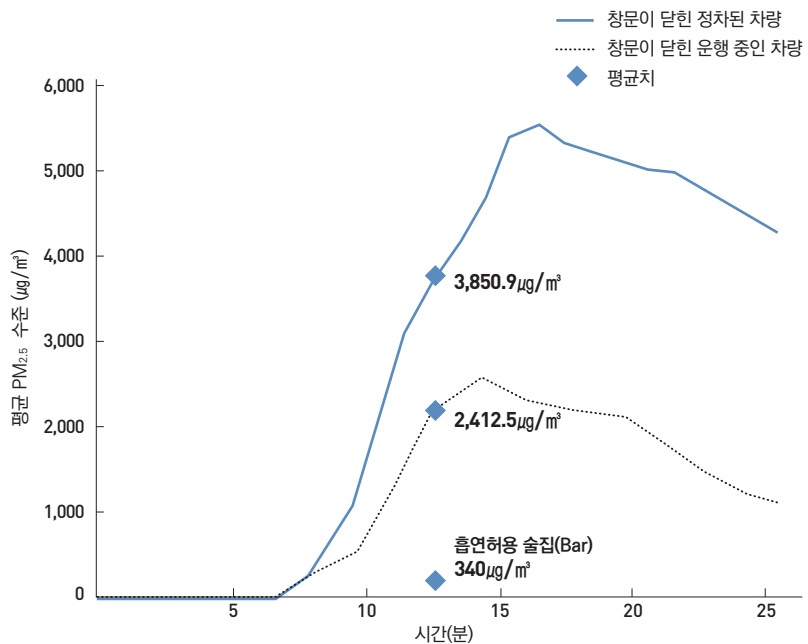
\* △ : 부분적 금연구역

\* 세계이행국가비율 : FCTC 당사국 중 해당 지표를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 출처 : WHO. (2016).

특히, 최근에 개인용 차량에서의 흡연을 규제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여러 연구에서 차량 내 담배연기 오염 물질을 측정 한 결과, 일정 수준의 환기를 해도 담배연기로 인한 오염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연구에 따르면, 창문을 닫은 상태의 정차된 차량 내부에서 켜진 한 개비를 피우면 흡연이 허용되는 술집(Bar)에서 측정되는 수준보다 11배 높은 간접흡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중인 차량의 경우, 켜진 한 개비로 생성되는 간접흡연의 수준은 흡연이 허용되는 술집의 평균 수준의 7배에 달한다. 연구진은 최소의 기류(창문이 닫힌 상태의 정차된 차량) 상태에서 PM<sub>2.5</sub>로 알려진 미세입자 수준이 미국 환경청(US EPA)의 표준보다 100배 이상 크고 '위험' 등급의 1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영국은 아동이 동승한 차량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간접흡연에 보다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유 차량임에도 아동과 동승할 경우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2015년부터 18세 미만과 동승할 경우 차량 내부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이 있을 때 흡연하는 것이 폐렴 및 기관지염, 천식 악화, 중이염 및 폐 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상 폐해의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 또한 간접흡연 폐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방안 마련을 꾀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 차량 내부에서 켜진 한 개비로 발생하는 간접흡연 수준



\*미국 환경청(US EPA) 기준 하루 평균 노출 한계치 : 35µg/m³

※ 출처 : Sendzik, T, et al. (2009).

#### 간접흡연 폐해 예방,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끊임없이 금연구역을 확대함으로써 담배연기로 인한 건강 폐해를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는 FCTC 조항 중에서 비교적 우수하게 이행하고 있는 조항이 제8조라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느 곳에서나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변화시킬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아직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발생하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담배연기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전 세계가 담배연기 없는 세상을 위해 전진하고 있는 이유이며, 우리 또한 함께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MONTHLY INDEX  
NOVEMBER 2017



이달의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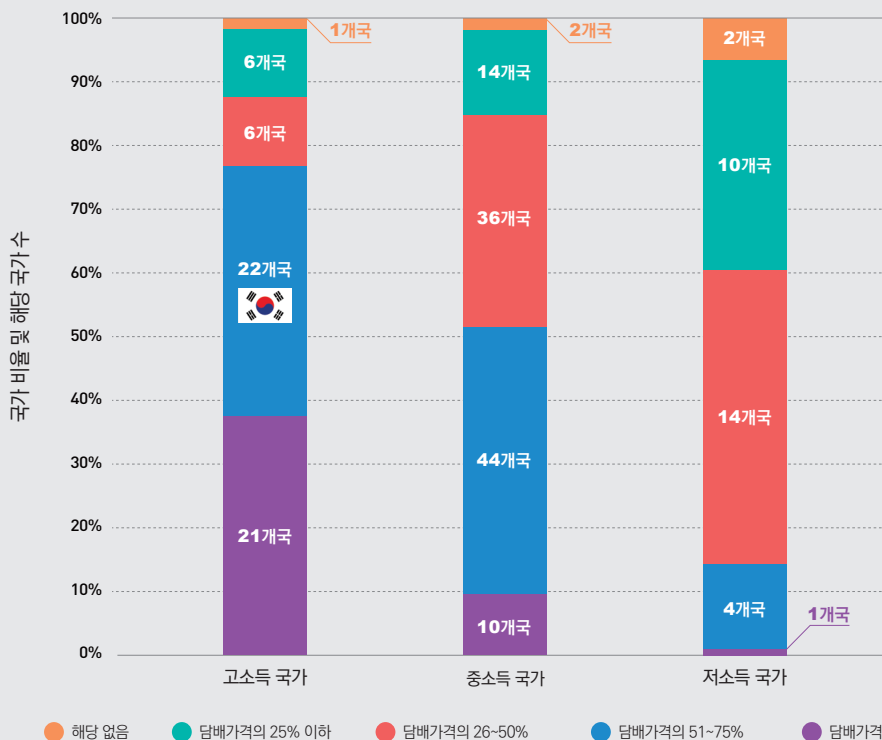
이달의 지표에서는 담배규제와 관련된 주요지표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여 금연정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월 선정되는 담배 규제 지표의 최신 데이터를 살펴보고 국내·외 금연정책의 동향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담뱃세  
Taxation of Tobacco Products

2017년에 발표된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에 따르면 전 세계 32개국(전 세계 인구의 10.1%)만이 WHO가 권고하는 수준인 소매가격의 75% 이상의 담뱃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되고 전체 담뱃세의 비율이 소매가격의 73.8% 가량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종전 평균 소매가격 2,500원 중 62.0%이 세금이었던 데에 반해 크게 개선된 것이다. 또한, 담배제품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담뱃세 중 일정 부분을 금연사업 및 건강증진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6조의 세부이행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WHO가 권고하는 최고 수준인 75%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특히 세계적으로 국가 경제 규모상 고소득 국가에 속하는 만큼 보다 강력한 담뱃세 정책의 추진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 소득수준별 담뱃세 비율



\* : 우리나라 해당 부분

※ 출처 : WHO. (2017).



## 참고문헌

---

- 법제처. (2017). 국민건강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7).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발표회 자료집.
- 조선일보. (2017). 담배밀수 누가 하나했더니... '여행자 승무원' 1위. 이희정 기자. 관세청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금연이슈리포트 총권 제31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 2017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
- ASH. (2016). Smoking in cars.
- 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Agriculture and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2016). Implementation of Smokefree Legislation: No-smoking in private vehicles. Isle of Man Government.
- Sendzik, T, et al. (2009).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obacco smoke pollution in cars. *Nicotine & Tobacco Research*, 11(6), 627-634.
- WHO. (2016). Global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 구독신청

매월 금연이슈리포트(Tobacco Control Issue Report) 온라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주소로 소속,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해주시요.

홈페이지 : [www.khealth.or.kr](http://www.khealth.or.kr)

구독신청 이메일 주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tcir@khealth.or.kr](mailto:tcir@khealth.or.kr)

### 12월호 예고

12월호에서는 담뱃갑 포장규제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담뱃갑 경고그림을 시행한지 1년이 된 시점에서 정책의 성과를 짚어보고 우리나라 담뱃갑 포장규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봅니다.

